



한마음 아버지마당 참가자들의 활기찬 모습. 한마음 과학원에서는 2월 4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아버지마당을 새로 시작한다. 아버지마당은 '아버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가부장적이지 않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네요”

한마음과학원, 안산 고잔고서 아버지마당 진행...17인 아버지 자기성찰 기회 가져

“아빠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거나 하세요?”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세요!”

어느새 아버지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가족들이 큰 소리로 원망할 때 아버지 마음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울려 퍼진다. “그럼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아버지들조차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새가 없다. 가장·아버지·남편으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지만 가정 내에서 아버지라는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간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아버지 17명이 모였다. 좋은 아버지이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거나 소외당하는 느낌을 겪었던 아버지들 말이다.

안양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은 10월 26일부터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안산 고잔고등학교 1·2학년 아버지 17명을 대상으로 고잔고등학교에서 ‘2011 고잔 아버지교실’을 진행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잘 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금연한지 26일째인데 버티기가 꽤 힘든데요. 그래도 집안이 화목해져서 좋은 거 같네요.”

11월 30일 5주차 마지막 프로그램에 접어드는 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학교에 모인 아버지들은 조별로 모여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느라 정신

이 없다. 어머니들만큼 수다쟁이다.

“고잔 아버지교실”은 한마음과학원과 고잔고등학교(교장 김종찬)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한마음과학원이 2009년부터 한마음선원 신도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을 모집해 실시한 ‘한마음아버지마당’을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공립학교에서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이라 의미가 깊다.

아버지들은 5주 동안 4개 조로 편성돼 이경욱 교수(원광디지털대)의 지도아래 ▷다르게 세상보기 ▷겨울속의 아버지, 겨울 밖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만가지 꽃이 피고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버지들은 매주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내와 자식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또한 평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써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자녀에 대한 진창과 희망적인 말을 전하는 연습을 통한 결과와 느낀 점을 조원들과 공유했다.

조남정 학부형은 “이곳에 와서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아버지다운 아버지였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가정에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박상규 학부형은 “나는 가부장적이지 않고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인 것을 깨달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아버지교실’은 5주간의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아버지들이 가족

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체험의 장이었다.

이경욱 교수는 “5주간 아버지들이 편안히 남자·아버지로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아버지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데서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고잔고 교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을 보면서 자식에 대한 열정과 학교에 애정이 넘치는 분들이라 생각한다”며 “학부형들이 아버지교실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근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며 “한마음과학원과 고잔고등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종교나 개인적 신념에 상관없이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2009년 처음 개설됐다.

프로그램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 맞는 참된 소임과 역할에 대해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버지들로 하여금 가정과 아내, 자녀들을 통해 스스로 밝혀 나가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2012년 2월 4일부터 안양 한마음과학원에서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1월부터 참가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031)471-6926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한마음도리 거부감 없이 소개했다

프로그램 개발 참여자 김종길 회원 인터뷰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되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아버지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개발·기획에 참여한 김종길 선수행실천연구회 회원은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심화반을 이수하고 여러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던 아버지교실을 벤치마킹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큰 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안 및 관련 큰 스님 법문을 발췌·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며 “회원들과 함께 1년 동안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2009년 11월 한마음아버지마당이라는 공식프로그램명을 갖고 제1기 과정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김종길 회원은 “이번 고잔고에서 실시한 아버지교실은 대행 스님의 한마음도리를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며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큰 수확을 얻었을 것이다. 앞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가정의 고민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아버지들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버지들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 포교사(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하고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